

담양, 정보공개 평가서 최우수 등급

담양군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2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 최고 등급인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정보공개 운영실적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591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했다.

평가는 군민이 청구 요청 전에 정보를 공개하는 사전 정보 공표, 부군수 이상 결재문서를 원문 그대로 공개하는 원문정보 공개, 정보공개 청구 처리가 지연 없이 적시에 처리됐는지 여부, 정보공개 청구인의 만족도 수준을 보는 10개 지표로 이뤄졌다.

군은 사전정보 등록건수·총실성, 청구처리 적정성, 고객 수요 분석과 이용자 만족도 실적 분야에서 만점이나 만점에 가까운 높은 평가를 받아 지난해 보통 등급에서 최고등급으로 수직 상승했다.

이병노 군수는 "전 공무원이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투명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군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양질의 정보를 통해 수준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조승채 기자

관관리 등 4개 분야 10개 지표로 나눠 이뤄졌다.

군은 사전정보 등록건수·총실성, 청구처리 적정성, 고객 수요 분석과 이용자 만족도 실적 분야에서 만점이나 만점에 가까운 높은 평가를 받아 지난해 보통 등급에서 최고등급으로 수직 상승했다.

이병노 군수는 "전 공무원이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투명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군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양질의 정보를 통해 수준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조승채 기자

함평, 치매 지역사회협의체 회의 개최

함평군은 지난 15일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관리사업 활성화를 위한 '2022년 하반기 치매 지역사회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치매 지역사회협의체'는 치매 서비스 제공 유관기관과 연계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치매 관리 사업의 활성화를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단체이다.

참여기관은 ▲함평군치매안심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함평군공립요양병원 ▲함평경찰서 ▲함평소방서 ▲함평군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함평군지회 ▲초대대학교 등 8개 기관이다.

이번 회의는 함평군 치매관리사업 운영 성과 보고, 기관 간 연계 협력 방안 토의, 치매노인관리 사례 및 개선의견 공유 순으로 진행됐다.

주요 안건으로는 ▲찾아가는 치매 조기검진을 통한 환자 조기발견 ▲실종 치매환자 발생 시 협력 방안 ▲치매노인 화재 안전 교육 등이다.

정명희 보건소장은 "치매는 지역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치매 자원을 발굴해 효율적으로 치매 관리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함평=김홍희 기자

이번 회의는 함평군 치매관리사업 운영 성과 보고, 기관 간 연계 협력 방안 토의, 치매노인관리 사례 및 개선의견 공유 순으로 진행됐다.

주요 안건으로는 ▲찾아가는 치매 조기검진을 통한 환자 조기발견 ▲실종 치매환자 발생 시 협력 방안 ▲치매노인 화재 안전 교육 등이다.

정명희 보건소장은 "치매는 지역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치매 자원을 발굴해 효율적으로 치매 관리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함평=김홍희 기자

나주, 전 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추진

나주시 공무원들이 손목을 닦는 등 응급상황에서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심폐소생술(CPR)을 연마했다.

나주시는 지난 14일부터 3일 간 시청사 대회의실에서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을 가졌다고 밝혔다.

심폐소생술 교육은 올해 이태원 참사 등 사회적 재난에 따른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마련됐다.

대한안전연합 광주지사 소속 강사를 특별 초청해 진행했으며 응급상황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공직자 대처 역량을 키우는데 중점을 뒀다.

교육은 총 8차시에 걸쳐 '문제인식-119신고-응급처치'로 이어지는 응급환자 최초 목격 행동요령·자동심장충격기 실습 중점

는 응급환자 최초 목격자 행동 요령과 이론 및 심폐소생술 실습,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등을 다뤘다.

나주시 보건소에 따르면 우리나라 심장마비 환자의 생존률은 약 7.5%로 주요 선진국 평균치(12~3%)보다 낮은 수준이다. 심장마비 증상 이후 4분 이전 심폐소생술을 통해 심장 박동이 돌아오면 뇌 손상을 최소화하거나 인명 구조 확률이 높다.

그러나 4분 이후부터는 '뇌손상 50%진행' (4~6분), '뇌손상 확실' (6~10분), 10분 이상이 경과하면 극심한 뇌 손상 또는 생존률 0%인 '뇌사' 상태에 이르게 돼 4분 이내 골든타임이 매우 중요하다.

/나주=조성준 기자

는 응급환자 최초 목격자 행동 요령과 이론 및 심폐소생술 실습,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등을 다뤘다.

나주시 보건소에 따르면 우리나라 심장마비 환자의 생존률은 약 7.5%로 주요 선진국 평균치(12~3%)보다 낮은 수준이다. 심장마비 증상 이후 4분 이전 심폐소생술을 통해 심장 박동이 돌아오면 뇌 손상을 최소화하거나 인명 구조 확률이 높다.

그러나 4분 이후부터는 '뇌손상 50%진행' (4~6분), '뇌손상 확실' (6~10분), 10분 이상이 경과하면 극심한 뇌 손상 또는 생존률 0%인 '뇌사' 상태에 이르게 돼 4분 이내 골든타임이 매우 중요하다.

/나주=조성준 기자

장흥 "친환경 양식 확대... 바다환경 살리기 집중"

친환경 수산물 직불금 전년대비 527% 증가

건강한 바다 생태계 구축... 안전한 먹거리 제공

장흥군은 10읍면 가운데 5개 지역이 바다와 접해있는 고장이다. 갯벌이 발달한 이곳에서는 김과 매생이, 키조개와 새조개 등 해조류와 패류가 많이 생산된다.

장흥군은 바다를 지키고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해 2008년부터 친환경 무산김 양식을 시작했다. 유기산을 사용하지 않은 무산김은 '착한김'으로 주가를 높이며 어가소득 향상에 효과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김 양식에 '산' 사용을 멈추자 바다가 응답했다. 바다 속에 산소를 공급하는 잘피 군락지가 확산되어 어류의 산란장이 늘어난 것이다. 새조개, 바지락, 키조개 등 패류 어획량도 증가했고, 이는 낙지 등 다른 어종까지 생산량까지 늘렸다.

장흥군은 여세를 살려 친환경 어업 확대와 바다환경 살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장흥군 친환경 수산물 직불금은 2021년 32억여 6억원에서, 2022년 162억여 35억원으로 527% 증가했다. 전년 대비 527%가 증가한 셈이다.

군은 청정해역 생태복원을 위해 양

친환경 무산김 양식을 시작했다. 유기산을 사용하지 않은 무산김은 '착한김'으로 주가를 높이며 어가소득 향상에 효과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김 양식에 '산' 사용을 멈추자 바다가 응답했다. 바다 속에 산소를 공급하는 잘피 군락지가 확산되어 어류의 산란장이 늘어난 것이다. 새조개, 바지락, 키조개 등 패류 어획량도 증가했고, 이는 낙지 등 다른 어종까지 생산량까지 늘렸다.

장흥군은 여세를 살려 친환경 어업 확대와 바다환경 살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장흥군 친환경 수산물 직불금은 2021년 32억여 6억원에서, 2022년 162억여 35억원으로 527% 증가했다. 전년 대비 527%가 증가한 셈이다.

군은 청정해역 생태복원을 위해 양

급하는 잘피 군락지가 확산되어 어류의 산란장이 늘어난 것이다. 새조개, 바지락, 키조개 등 패류 어획량도 증가했고, 이는 낙지 등 다른 어종까지 생산량까지 늘렸다.

장흥군은 여세를 살려 친환경 어업 확대와 바다환경 살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장흥군 친환경 수산물 직불금은 2021년 32억여 6억원에서, 2022년 162억여 35억원으로 527% 증가했다. 전년 대비 527%가 증가한 셈이다.

군은 청정해역 생태복원을 위해 양

식어장 정화사업 및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해양쓰레기 수거에는 지역민을 중심으로 한 사회단체와 어민들까지 폭넓은 참여를 보이고 있다.

김성 장흥군수는 "청정해역 갯벌 생태산업특구의 명성에 걸맞게 친환경 수산물의 생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건강한 바다 생태계를 지어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흥=임민기 기자

장성, 내년도 주민편익사업 조기 발주 '시동'

읍면 시설직 공무원으로 자체 설계단 구성... 내년 사업 228건 직접 설계

장성군이 신속한 주민편익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15일 자체 설계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군은 단장인 박종순 장성군청 건설과장과 읍면 시설직 공무원 11명을 중심으로 자체 설계단을 구성하고, 내년 2월 10일까지 약 2개월간 장성

군민회관에서 합동 집무에 돌입한다. 주민편익사업은 주민 삶에 편의성과 유익함을 더하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장성군이 내년에 추진하는 주민편익사업은 용·배수로 정비, 농로 포장, 마을안길 재포장 등 228건이며, 총사업비 83억 원 규모다.

자체 설계단에서 주민편익사업을 직접 설계하면 설계용역비로 발생하는 6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특히 사업 발주 시기를 앞당겨 영농기 이전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예산 조기 집행을 통한 건설경기 부양과 지역경제 활성화도 예상된다.

설계단 활동에 참여하는 신규 시설직 공무원의 설계 역량 향상도 기대해볼 수 있다.

설계단은 이달 말까지 현지 조사와 현황 측량을 마치고, 내년 1월부터 설계도서 작성에 들어간다. 2월 중 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을 발주해 3월경 착공할 계획이다.

/장성=심재식 기자



천불천탑 운주사, 새해부터 "화순군민은 무료 관람"



내년 1월 1일부터 화순 군민의 운주사 관람이 무료로 변경된다.

화순군과 대한불교조계종 운주사(무안 주지스님)는 2023년 새해부터 화순군민들의 운주사 관람 요금을 전면 무료화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운주사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군민과 타 지역 관람객 구분 없이 관람료를 일괄적으로 징수해 왔다. 이 때문에 화순군의회를 비롯한 군민들 사이에 관람료 면제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있어 왔다.

민선 8기 들어 군민 문화 향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 지고 화순군과 운주사의 관람료 면제 합의에 따라, 모든 화순군민에게 혜택이 돌아갈게 됐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운주사 측과 수차례 논의를 통해 합의에 이르렀다"며 "군민 문화생활 향유 확대를 위해 큰 결심을 해 주신 무안 주지스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구 군수는 "사찰과 지역 사회가 상생하는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다"며 "운주사와 주변 문화유산의 소중한 가치가 더욱 확산될 수 있게 보존을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도암면에 소재한 운주사는 국가지정 문화재 사적 제312호로 지정되고 있으며,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돼 있어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 중이다.

화순팍 · 로컬푸드 활성화 발걸음 빨라진다

고품질 지역 농수특산물 안정적 공급 협약식

화순군은 최근 하나문문화스포츠센터 적벽실에서 화순팍과 로컬푸드 참여농가(업체)를 대상으로 협약식 및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화순팍과 로컬푸드로 두 차례 진행됐다. 로컬푸드 협력 협약식은 4개 농축협(화순농협, 도곡농협, 능주농협, 화순축협)과 협약을 맺었으며, 화순팍 협약식은 화순팍에 입점해 있는 45개 농가(업체)를 대표하여 9개 농가(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지역 내 생산·가공된 안전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로컬푸드 활성화

및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이와 같이 협약을 추진하게 되었다.

화순군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인 화순팍과 지역농산물의 직거래장인 로컬푸드를 더욱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마련한 자리에 관내 800여명이 넘는 농가 및 업체에서 참석하여 협약식 진행 사항을 지켜보았다.

또한, 농가를 대상으로 화순팍 시스템 안내, 푸드플랜, 로컬푸드 성공 사례, 농산물 안전성 교육 등 4건의 교육도 같이 실시했다.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온오프라인으로 판

매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내년에는 화순팍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고, 핸드폰 앱으로도 누구나 손쉽게 주문할 수 있도록 구축할 계획으로, 로컬푸드 출하 농가들의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 할 예정이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군과 농축협이 협력하여 유통과정 및 판로를 개척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책임지고, 농가는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화순팍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우리 지역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널리 알리고, 로컬푸드 직매장에 출하하는 농가들에게 적극 지원하여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주용현 기자

담양의 품격

대숲맑은 담양 공동브랜드

대숲맑은 담양 청정 자연이 주는 건강한 첫 느낌을 손에서 손으로 직접 전하고 싶습니다. 따뜻하고 성실한 농부의 손길로, 정직한 농부의 마음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합니다.

담양군·농협경제지주담양군연합사업단